

비상경제장관회의 **경제부총리** 모두발언(3.28)

-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금년도 첫 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살펴보면, 각 부문에서 양호한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.
 -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의 경우, 1분기 플러스 폭이 7분기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
* 수출증감율(전년비, %): ('22.2Q)13.0...('23.1Q)△12.8 (2Q)△12.0 (3Q)△9.7 (4Q)5.7 ('24.1.1~3.20)11.2
 - 수출 호조에 동반된 제조업이 개선흐름을 보이고, 이에 더해 서비스업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, 쏙산업 생산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.
 - 고용은 1~2월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 신호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습니다.
- 이와 같은 양호한 경제지표가 국민에게 보다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는 내수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'균형 잡힌 성장, 체감되는 성장'의 본궤도에 올리하고자 합니다.
 - 이에 SOC·일자리 등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집행*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* 최근 5개년 상반기 집행목표(중앙, %) : ('20) 62.0 ('21) 63.0 ('22) 63.0 ('23) 65.0 ('24) 65.0
 -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·지역·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투자의 새 모델을 짜고, 물꼬를 트고, 걸림돌을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
 - 그제 「지역활성화 투자 펀드」를 출범시킨 데 이어,
 - 오늘은 「기업·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」, 「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」을 발표합니다.

[기업·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]

- 먼저, 작년 11월 발표한 「1차 투자 활성화 방안」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입니다.
- 규제 완화, 절차 간소화, 반드시 필요한 투자인프라 조성 등 총 47.2조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를 담았습니다.
 - 서울의 '트윈힐 대관람차' 건립사업은 1.1조원 규모의 우리나라 관광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.
 - 정부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포함한 행정절차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하겠습니다.
 -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지자체 산업단지 면적 한도를 초과하여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
 - 새만금, 영일만, 광양만 등 이차전지 산단에 전력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습니다.

[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]

- 다음으로 고금리, 공사비 상승, 미분양 증가 등 건설부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「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」입니다.
 - 물가상승, 적정단가 등을 감안하여 공공부문 공사비를 조정하고, 민간부문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.
 -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를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정상화하고,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.
 -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원하여 리스크를 완화하고, 주택부문 PF 보증요건 완화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, 주택공급 조기화와 규제 개선으로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.

[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]

[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]

□ 아울러, 토지·농지규제 개선,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경제회복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○ 기업 입지에 장애가 되어온 개발제한구역, 자투리 농지, 산지 등 토지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.

○ 또한, 농촌지역에 ‘찾아가는 원격협진*’을 본격 시행하고, 주거·농지 등 농촌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.

* 원격협진을 보건소 방문 없이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진료시스템 고도화

[산업안전 대진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]

□ 한편, 「중대재해처벌법」 확대 적용으로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「산업안전 대진단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○ 정부는 4월 말까지 대진단을 집중 실시하여 83만여 개의 대상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끝으로, 의료는 국방·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입니다.

○ 정부는 필수·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려고 합니다.

○ 소아·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지원 확충은 물론,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,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고,

○ 미래의료 선도를 위한 R&D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등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.

□ 이어서, 안전과 관련하여 국토부 장관, 농식품부 장관, 고용부 장관의 자세한 말씀이 있겠습니다.

(국토부 장관, 농식품부 장관, 고용부 장관 모두발언)

□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